

“꿈의 무대 활약, 내가 더 기대된다”



카디프시티 김보경이 2012~2013시즌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1부 리그) 승격을 확정된 김보경은 내년 시즌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2010년 2월 동아시아연맹선수권 참가를 위해 출국 인터뷰 중인 모습. 스포츠동아DB

12번째 프리미어리거 김보경 귀국

우승 후 팬들과 세리머니 잊지 못해
체력·기술 등 보완해 다음 시즌 준비
옆동네 기성용에게 조언 많이 구할 것



“그냥 생각만 해봤죠.”

유럽 축구에서도 최고의 무대인 그곳은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그냥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다. 김보경(24·카디프시티)에게 현실로 다가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그랬다. 영국 생활 1년여 만에 한국 선수 12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된 김보경이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그는 “카디프에 입단했을 때만 해도 ‘그곳이 어떨까’란 상상만 했는데, 현실이 되니 너무 기대된다. 승격에 기여했다는 게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디프는 지난 달 17일 찰턴과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43라운드(0-0 무승부)를 통해 잔여 3경기와 관계없이 일찌감치 EPL 승격을 확정했다. 아울러 챔피언십 정상도 밟았다. 팀 내 연봉 톱5에 드는 김보경 역시 계약에 따라 연봉 및 수당이 30% 인상되는 결정사를 누리게 됐다.

당연히 새 시즌에도 김보경과 카디프는 함께 한다. 축하 퍼레이드 등 수많은 행사가 끝난 뒤 카디프 말기 맥카이가 감동은

2012~2013시즌 마지막 팀 미팅에서 김보경을 향해 “자랑스럽고 잘해줬다. 이제 개인적인 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가올 2013~2014시즌에도 그를 중용하겠다는 의미다. 팀 피지컬 코치도 따로 비시즌 훈련 프로그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지역 언론 웨일즈 온라인도 “카디프는 김보경과 함께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김보경은 “(영국은) 대단히 더프하고 빨랐다.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술도 더 향상시켜야 한다”며 한 시즌을 돌아봤다.

그래도 기대감은 감추지 못했다. 모든 이가 인정하는 프리미어리그다. 공황에 마중 나온 아버지 김상호 씨와 두 살 터울의 남동생 채경 씨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김보경은 “우승 직후 팬들이 그라운드로 몰려나와 날 에워쌌을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격을 맞았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카디프가 1부 리그를 밟은 건 52년 만에 자 프리미어리그로 개칭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가까운 곳(스완지시티)에 있는 (가)성용이에게 자주 연락해 조언도 구하고 얻을 건 얻어가겠다”고 미소 지었다.

인천국제공항 | 남정원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신지에 “세계랭킹 1위 기회 있다”

대한적십자 홍보대사 위촉식서 박인비에 도전장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해볼만 하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쟁탈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신지에(25·미래에셋·사진)가 새로운 여제로 등극한 박인비(25·KB금융그룹)와 선의의 경쟁을 예고했다. 신지에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박)인비의 활약을 보면서 큰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에는 2010년 5월 한국선수로는 처음 세계랭킹 1위에 올라 7주간 유지했고, 그해 7월과 11월에도 25주 동안 1위를 지켰다. 현재는 7위로 밀려났다.

그 사이 박인비가 1위 자리에 올랐다. 둘은 중고교 시절부터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온 동갑내기다. 최나연(26·세계랭킹 4위)까지 3명이 주니어 시절 우승을 나눠가졌다.

신지에는 “인비는 친구이자 경쟁자다”라면서 “한국 선수가 다시 1위에 올라 자랑스럽다. 나도 같은 선수로서 다시 그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1위 탈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지금은 순위가 언제 바뀔지 모를 정도로 차이가 근소해 나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메이저대회가 5개로 늘어 아직 4개가 남아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날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위촉된 신지에는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신지에는 16일부터 미국 앨라배마 주 모빌에서 열리는 모빌비에 LPGA 클래식에 나설 예정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이요한, 동아일보기 정구대회男 일반부 단식 우승

이요한(이천시청)이 10일 경북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열린 제91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마지막 날 남자 일반부 단식 결승에서 이수원(달성군청)을 4-1로 꺾고 우승했다. 여자 일반부 단식 결승에선 김예경(문경시청)이 김지연(옥천군청)을 4-2로 누르고 2년 만에 이 대회 정상을 되찾았다. 남자 고등부 결승에선 김태민(구미고)이 김동연(문경공고)을 4-1로 제압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세계혼합단체전 출전명단 확정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9~26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에서 열리는 2013 세계혼합단체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선수 12명을 10일 확정했다. 남자복식을 대표하는 이용대(삼성전기)-고성현(김천시청·세계랭킹 2위), 김사랑-김기정(이상 삼성전기·세계랭킹 5위)을 필두로 여자단식 세계랭킹 6위 성지현(한체대) 등이 망라됐다. 이득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세계 정상을 노리며, 20일 홍콩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대한항공 한선수, 역대 최고연봉 5억에 재계약

프로배구 FA(자유계약) 최대어로 꼽혔던 남자부 대한항공 세터 한선수가 역대 최고연봉에 팀과 재계약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0일 남녀 FA 선수에 대한 1차 계약현황을 공시했다. 한선수는 5억원에 사인했다. 삼성화재 박철우(3억3000만원), 현대캐피탈 권영민(2억5000만원)과 최대우(2억2000만원), LG손해보험 이경수(2억원) 등도 도장을 찍었다. 여자부에서도 최고연봉 기록이 깨졌다. 현대건설 센터 양효진이 2억5000만원에 재계약해 작년 김사니(흥국생명)의 1억9000만원을 넘어 섰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 @simss23

김형성, 5년만에 국내골프 우승 기회

‘스마일킹’ 김형성(33·하이스코)이 5년 만에 국내 투어 우승 기회를 잡았다.

김형성은 10일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 골프장(파 72·6348m)에서 열린 제32회 GS칼텍스 매경오픈(총상금 10억원·우승상금 2억원) 2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치며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로 단독 선두가 됐다.

2010년부터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활약 중인 김형성은 2008년 에이스저축은행 몽베르오픈 우승을 끝으로 국내 투어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국내 투어 통산 3승을 기록 중이다. 일본 투어에서는 지난해 바나나 H컵 KBC 오거스타 정상에 차지하며 4년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김형성은 “드라이브 샷 타이밍을 잡지 못했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쇼트 게임이 지금처럼만 풀리면 우승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남 | 주영로 기자

효천고 차명진, 황금사자기 개막전 완봉승

13K 호투…충훈고 3-0으로 제압
정동현 8.2이닝 1실점 휘문고 16강

효천고가 차명진의 완봉 여부에 힘입어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효천고는 1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제6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동아일보·스포츠동아·대한야구협회·창원시 공동 주최) 개막전에서 충훈고를 3-0으로 제압하고 16강에 선착했다. 승리의 일등공신은 3년생 우완 정동파투수 차명진. 주말리그에서 이미 6차례나 완투하며 4승(1패)을 수확한 에이스 차명진은 이날 충훈고 타선을 맞아 8회 1사까지 노히트노런 행진을 펼치는 등 9이닝 2안타 13탈삼진 무실점의 완봉승을 거뒀다. 투구수는 127개.

7회까지 0-0으로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던 양 팀의 승부는 8회 효천고 공격에서 갈렸다. 효천고는 선두타자 이승민의 안타에 이어 후속타자 신관식의 내야안타 때 충훈고 1루수의 송구 실책을 틈타 선취 결승점을 올렸다. 효천고는 이어진 무사 2루 찬스에서 안타와 희생번트, 상대 실책을 묶어 2점을 추가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효천고는 18일 경남고와 16강전을 치른다.

이어 벌어진 경기에서는 휘문고가 대구고를 3-1로 꺾고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휘문고는 9회 2사 1·2루의 위기에서 바뀐 투수 신병률이 대구고 김범준을 2루수플라이로 잡고 승리를 지켰다. 휘문고 선발투수 정동현은 8.2이닝 1실점으로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1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제6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개막전에서 6회 충훈고 김택중이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효천고 2루수 남승운에게 태그아웃당했다. 창원 | 장승운 동아일보 기자 tomato99@donga.com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단 한번 ‘뉴 맨’!! 평생 단단한 몸!!



대표이사 서영숙

www.newm.kr

NAVER 뉴맨

네이버에 뉴맨을 검색하세요.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서에서 20대는 하루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의 성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낸바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 남자가 변한다!

‘뉴 맨’은 젊고 발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 강도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발기 어려움을 만큼 커지고 단단하고 강해져 횟수와 시간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준다.

▶ 최장! 최다의 기록! ‘뉴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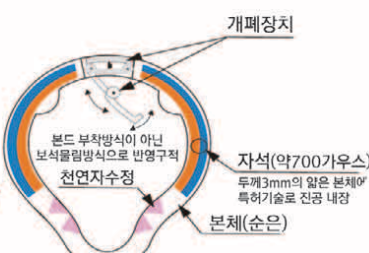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받은 ‘뉴 맨’은 2005년 각종신문매체에 광고 판매를 시작, 현재 8년간 8천여회의 신문광고로 단일제품 사상 전무후무한 최장기간, 최대매체의 광고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여개국 수출, 50만 고객 돌파의 쾌거도 이루었다. 50만 고객의 의미는 100만 고객일 것이다.

▶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등·장맥위치와 역할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상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뉴맨 단면도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서 세력의 강한 발기와 관계시의 혈관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5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몸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 8년간 지켜온 뉴맨의 약속!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이 약속은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국내 유일 ‘성기능강화용 링’ 특허 획득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 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